

한·오만 에너지장관 회담

- 김영호(金泳鎬) 산업자원부 장관은 2000. 4. 18(화)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알 루미(Al-Rumhy)오만 석유가스부 장관을 만나 양국간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함
- 양국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의 국제유가 동향을 비롯하여 한국의 대오만 건설프로젝트 참여, 오만 원유의 직도입 물량확대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교환함
- 양국 장관이 의견을 중점 교환한 관심사항은 다음과 같음

국제유가 안정화

- 김 장관은 지나친 고유가는 원유 수입국은 물론 생산국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알 루미 장관에게 오만 정부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
- 이에 대해 알 루미 장관은 오만 정부도 OPEC의 석유증산 결정을 지지하며 그 결과에도 만족한다고 대답하면서, 국제 유가가 적정수준(18~25\$/배럴)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언급

오만산 원유 직도입 확대

- 김 장관은 한국이 오만 원유의 주요 고객인 점을 감안하여 오만 정부가 한국업체에 직공급하는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
- 알 루미 장관은 석유 메이저를 통해 원유를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

만 정부의 대한 직공급 물량을 확대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

對오만 건설프로젝트 참여

- 김 장관은 한국업체의 대오만 건설프로젝트 참여는 양국간 무역 불균형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소하르 정유플랜트를 비롯한 각종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가 주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
- 알 루미 장관은 입찰과정에서 한국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추진할 것이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변
- 이와 함께 가스파이프라인, 폴리프로필렌 제조설비, 비료공장등 각종 프로젝트를 계획중인 바, 동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활발한 지분참여를 기대한다고 언급

남북 정상회담 관련

- 알 루미 장관은 한반도 통일은 당사자는 물론 여타 모든 국가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, 특히 오만 입장에서도 한국이 대북 비료, 가스 진출의 교두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
- 이에 대해 김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화해, 교류, 협력 증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오만 정부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요청함